



# 이화여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 의과대학 소식지

Ewha Womans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News

첫째, 의사에게 필수적인 의학 지식과 술기, 효과적인 의사소통능력에 바탕을 둔 기본적인 진료 능력을 확립한다. 둘째, 건전한 윤리관, 사회적 책무성, 여성 리더십과 능동적인 자기개발능력을 함께 갖춘 의학 직업전문성을 확립한다. 셋째, 비판적 탐구 자세를 통해 다양한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여 학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능력을 함양한다. 넷째, 이웃과 국가, 나아가 인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사랑과 섬김의 자세를 함양한다.

발행인: 김경호 편집인: 문혜성 발행: 이화여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안양천로 1071 전화 02-2650-5703~4 팩스 02-2653-8891

제 41 호 < 2014. 9 >

## 의학전문대학원 · 의과대학 소식

### ◎ 제22대 김경호(소아청소년과) 신임 의과대학 · 의학전문대학원장 취임



이화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가지로 중요한 사안들이 많은 시기에 의전문대학원이라는 막중한 자리를 맡게 되어 큰 책임감을 느끼며 이화의 가족들과 가치관을 공유하여 함께 우리가 직면한 과제들을 잘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임 정성민 의전문대학원장께서는 2015년

의과대학 체제 전환을 위한 교과과정 개편을 주도해 기틀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2013년에는 우리 의전문대학원의 발전 전략 도출을 통해 본교에서 의학전문대학원 연구역량강화를 위한 연구비로서 5억 3년간 총 15억의 1단계 지원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또한 2014년 10월에 있을 한국대학교육평가원의 의학교육평가를 대비하여 자체평가보고서를 완성하여 주셔서 이를 기반으로 저희는 실사와 평가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마곡에 위치하게 될 의과대학의 신축설계도 기틀을 잡아 주셨습니다. 이에 전임 정성민 의전문대학원장님과 보직자 여러분들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대 의전문대학원은 2015년 개교 70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해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첫째, 의과대학에서 2007년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한 이후 2015년 의과대학 체제로 다시 전환되어 새로운 의과대학 학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학생들의 의학교육에서 이미 최고를 보이는 우리 학교의 역량을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둘째, 마곡에 위치하게 되는 새로운 의대 캠퍼스의 신축을 위해 우리 모두의 부단한 노력과 지혜의 모음이 필요합니다. 셋째,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타 대학과 비교하여 뒤쳐지지 않게, 아니 오히려 다시 치고 올라가는 역량의 상승이 필요합니다. 이는 교육, 봉사뿐 아니라 최근 국내 혹은 국제적으로 대학의 평가 지표로 우선되는 연구역량 분야에서 더욱 절실합니다. 넷째, 개교 70주년을 준비하는 이 때에 이화의 동창들과 더욱 긴밀

한 유대를 가지고 이화를 자랑하며 지속된 관계를 형성하여 이화 Dream and Achievement (DNA)를 이루어 내야 할 때입니다. 이제 의료원 건립과 더불어 새로운 의대 캠퍼스의 신축이 매우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또한 2015년 의예과 학생의 입학은 아주 신선한 기대로 모든 이화인에게 다가와 모두를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전문대학원으로서 의대 교수님들이 보여주는 성실함, 책임감 그리고 무한한 잠재력에 대해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합니다. 이미 훌륭하게 헌신해 주고 있는 교육과 봉사에 더해 이제 발동이 걸린 연구와 논문의 업적 향상을 통해 우리 의대 교수들의 역량을 모두에게 증명하면 좋겠습니다. 겸손과 내실의 미덕을 지향하였던 우리는 앞으로는 우리의 역량과 성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이대 의대를 빛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며 글로벌 여성의학자, 리더로서의 꿈을 가지고 젊음을 불태우는 학생들, 진료와 교육, 봉사 및 연구에 매진하시는 교수님, 이대를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주시는 직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이화를 사랑하시고 성원을 보내주시는 동창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이화의 가족들께 하나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9월

### ◎ 정성민 전임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장 마지막 운영위원회 개최 후 퇴임



제22대 정성민 전 의전문대학원장은 마지막 운영위원회를 마치고 운영위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였다.

### ◎ 신입 제22대 운영위원회 명단

김경호(의전문대학원장), 서주영(교무부원장), 이지수(임상교무부장), 임원정(학생부원장), 문혜성(기획부장), 정성철(연구부원장, 연구소장), 홍영선(의학교육부장), 양현중(입학관리부장), 최지하(교무차장), 주웅(교무차장), 이진화(임상교무차장), 김승정(임상교무차장), 정최경희(학생차장), 박영미(기획차장), 조수진(기획차장), 윤주천(연구차장), 임수미(연구차장), 어은경(의학교육차장), 정혜경(의학교육차장), 유은선(입학관리부차장), 정경애(입학관리부차장)

### ◎ 의학전문대학원 전체교수회의 개최, '총장과의 열린 토론' 가져



9월 16일(화), 김옥길홀에서 제167차 의전문 임시 전체교수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지난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의전문 소속 교수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날 행사는 개회 기도를 시작으로 총장님 인사, 제2부속병원 건립기금 기부 약정식, 처장단 소개, 본부 부처 보고, 마곡병원 건축 진행 상황 및 의전문 현황 · 발전 계획 보고, 자유 토론 등으로 마련됐다. 최경희 총장은 “마곡병원 건립을 앞둔 중요한 시기에 의전문에 계시는 교수님들을 비롯한 모든 이화의 구성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결속력”이라며 “의료 · 생명 · 약학 · 공학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본교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교수회의에서는 특별한 순서가 마련됐다. 최 총장이 본교 제2부속병원의 성공적인 개원을 기원하며 건립기금을 약정해 의료원 발전에 대한 강력한 지원의지를 보였다.

본부에서 참석한 서혁 교무차장, 박선기 기획차장, 오역수 연구처장의 각 부처별 업무성과 및 계획 보고에 이어 의료원의 조영주 기획실장과 의전문의 서주영 교무부원장이 각각 마곡병원 건축 진행 상황과 의전문 현황 및 발전 계획에 대해 발표해 학교와 의료원의 주요 이슈와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공유했다. 이어 자유토론 형식의 '총장과의 열린 토론'이 개최돼 예정된 시간이 훨씬 넘었음에도 최 총장과 교수들 간의 격의없는 토론이 펼쳐졌다. 토론은 익명으로 문자를 보내거나 현장에서 직접 질의하면 최 총장이 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번 토론에서는 규제 및 행정서비스의 개선, 의료원 및 의대에 대한 투자, 연구 · 실험 공간 확충, 제2부속병원의 건축 설계에 대한 검토 등 다양한 현안들이 가감 없이 논의되었다.

### ◎ 2015학년도 이화여자대학교 수시 접수 마감 의예과 일반전형 125.1대 1의 가장 높은 경쟁률

9월 15일(월) 19:00에 마감된 이화여자대학교 2015학년도 수시 모집 원서접수 결과 의예과는 일반전형에서 125.1:1의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였다. 이화여대 전체 수시모집 결과는 총 1,871명 모집에 29,690명이 지원하여 전년(1,591명 모집/22,920명 지원, 평균 경쟁률 14.4:1) 대비 지원자 수가 6,770명 증가하여 평균 15.9: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는데, 의예과는 25명 모집에 1,465명 지원하여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의예과는 각 전형에서 모두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여, (1) 일반전형에서 125.1:1 (이화여대 전체 평균 30.7:1), (2) 학생부종합전형인 미래인재전형에서 15.0:1 (이화여대 전체 평균 7.5:1), (3) 수학/과학 특기자 전형에서 13.6:1 (이화여대 전체 실기/특기 전형 평균 11.8: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였다.

이처럼 의예과의 부활에 따라 우수 학생 지원이 눈에 띄게 증가된 것은 올해 이화여대 수시모집 원서접수 결과 나타난 두드러진 특징으로 주목된다.

### ◎ 최경희 총장, 채플 통해 의전문인과 소통의 만남 제목 의전문학생과 교직원과의 만남

최경희 총장이 채플을 의전문 통해 재학생들과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 9월 29일(월) 본원 채플 강단에 선 최경희 총장은 마가복음 13장 37절의 성경 구절을 바탕으로 '깨어있는 꿈'에 대해 메시지를 전했다.

최경희 총장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시절을 비롯해 대학에 가고 교수가 되기까지 늘 꿈을 가지고 살아왔다”며 “그때그때마다 품고 있는 꿈들이 있었기에 이를 이루려고 열심히 노력했고 덕분에 다양한 경험을 했던 것 같다”는 말로 주제를 소개했다. “늘 자신이 받은 달란트, 즉 재능을 갖고 닦아서 더욱 발전시키려는 깨어있는 모습을 지닐 것”을 당부했다. '총장님 말씀 주간'은 신학기를 열며 재학생 전체와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되어 이화의 선배로서 따뜻한 조언과 당부의 말을 전하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 ◎ 2014년 M4 OSCE-II / CPX-III, IV 시행

2014년 M4 CPX-III가 8월19일(화)~20일(수) 2일간, OSCE-II / CPX-IV가 8월 26일(화)~8월 28일(목) 3일간 의학관 B동 8층 (EMSC, PBL-Room)에서 시행되었다. OSCE는 임상 실행능력 평가의 한 방법으로 두어 학생들이 일련의 station을 돌며 문항을 수행하게 하는 시험이다. 이번 OSCE에는 전체 73명의 학생들이 6개의 조로 나뉘어 한 문항 당 5분, 총 12개의 문항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CPX는 환자 진료를 모의적으로 수행하면서 학생들의 임상 술기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본교는 서울-경기 컨소시엄에 소속되어 있어 컨소시엄 산하의 훈련반은 표준화 환자(SP)들이 시험에 투입되었으며, 12명 한 조로 무작위 배정된 학생들은 한 사례 당 16분씩, 총 6개의 사례를 가지고 시험을 치렀다.

